

부모 자식 간 부양 교환에 관한 연구

Elderly's Support Exchange between Parents and Grown-up Offspring

김상윤, 김한곤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Sang-yoon Kim(topout@naver.com), Han-Gon Kim(hgkim@yu.ac.kr)

요약

이 연구는 부모 자식 간 부양 교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부모 자식 간 부양 교환의 차이를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양 교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 자식 간 부양 교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다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동거·비동거 자녀와 노인 간 부양 교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락과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한계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부양교환은 대등하게 이루어지기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서적 부양의 경우, 노인들이 오히려 자식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나 사회가 자녀만큼 노인 개개인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노인과 그들의 자녀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부양 교환 | 호혜적 부양 | 신체적 부양교환 | 정서적 부양교환 | 경제적 부양교환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of support exchange and factors impacting on the support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grown-up children in 2011. Socioeconomic variables are introduced as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physical, and financial support exchanges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analysis of variance a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exchanges between the grown-up children living with parents and elderly parents are significantly varied by the socioeconomic factors. Second, the support exchanges between the children not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 elderly parents are significantly varied by the socioeconomic factors. A majority of the elderly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y do not receive appropriate supports from their grown-up children. On the other hand, it turned out that the elderly parents are highly contributable to provide the emotional support for their family members, and provide the emotional support to their grown-up children.

■ keyword : | Support Exchange | Reciprocal Support | Physic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 Financial Support |

* 본 연구는 김상윤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8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06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23일

교신저자 : 김한곤, e-mail : hgkim@yu.ac.kr

1. 들어가는 말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1]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이미 노쇠한 서구 나라들보다는 노인 비중이 적어, OECD 34개 나라 가운데 3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 1970년과 비교할 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4배로 뛰어, 1.6배인 OECD 평균 증가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화가 매우 빨리 진행됐다는 일본의 증가속도 3.6배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가져와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에는 3,704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2060년에는 2,18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총부양비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개개인의 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갈등과 노인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크게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사회현상과 그 대비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49.6%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들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책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가운데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 교환이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지원을 둘러싼 세대간의 관계에

서 상호호혜성은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방향으로의 비호혜성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5].

가족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터 속하게 되는 일차적 사회집단이다. 가족의 기능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 왔지만 가족은 오랫동안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육과 보호, 그 외 각 개인의 복지육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등 중요한 복지기능을 수행해 온 구성단위였다. 가족 간의 부양관계는 특히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은퇴로 인해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여겨졌다.

한편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호혜관계가 이루어 질 때 관계가 매끄럽게 유지되는데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인간은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부양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은퇴한 노인은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그 역할을 찾아줌으로써 노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노인이 그들의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손자·녀의 육아까지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노년층과 젊은 층이 얼마나 적절하게 부양교환을 해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주요한 과제이기에 이 연구에서 부모와 자식 간 부양교

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적 제도도 있지만 이들 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부양의 상호교환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자식 간 부양교환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부양교환의 유형 및 그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노인부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I. 문헌연구

1. 노인부양의 개념과 유형

부양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상의 원조’이다. 넓은 뜻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법적 부양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사법(민법)상의 친족 부양을 의미한다.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생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제7장 974조).

Caplan(1982)[6]은 부양이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Warren(1981)[7]은 물질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들어주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부양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유지의 부양과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생활유지의 부양은 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숙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해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빵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할 관계이다. 둘째로 생활부조 부양이 있는데

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하며, 협의(協議)의 부양이라고도 한다[8].

또한 부양은 부양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부양은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예산, 보험, 연금 등을 지원하는 부양을 의미하는데 그 예로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들 수 있다. 사적 부양에는 가족 부양과 자기 부양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양을 말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분류하면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으로 나눌 수 있다.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받는 경제적 부양,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받는 의미에서의 정서적 부양,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세탁, 질병 시의 시중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 부양이 있다[9][10].

노인부양은 ‘생존수단이나 자원을 갖지 못한 노인들이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필요한 모든 자원, 즉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1]. 황슬기(2013)[12]와 박근수, 김태일(2016)[13]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부양의 유형을 부양필요성에 따라서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으로 나누고 있다.

2. 부양의 형태별 분류

부양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1 정서적 부양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등 심리·정서적인 면의 욕구 충족과 안정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이다[14]. 노인의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부양은 경제적·신체적 부양과는 다르게 애정을 근거로 하여 공적인 부양에 의해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다[15].

노년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쇠퇴하는 시기로 노년기에 주로 직면하게 되는 상실은 배우자, 친구, 친척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 노인에 대한 경

시와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16].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상실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부양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신체적 부양

신체적 부양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독립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질병 시 간병, 병원 출입 등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17].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잘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성인자녀의 분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자녀수의 감소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18][19].

2.3 경제적 부양

경제적 부양은 부양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후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노후자금을 미리 비축해 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노후에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제도(각종 연금)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사적부양 중 특히 가족부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부양

3.1.1 거주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해가면서 농촌인구는 노령화되었다. 이처럼 농촌노인인구가 변하면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여 신체 및 심리적으로 쇠퇴한 노인들은 사회적, 가족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지원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0]. 그 결과 거주지에 따라 도시-농촌 간의 부양교환의 차이가 존재한다.

3.1.2 성별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족의 일과 더 연관되어 있고 남성성은 직업에 관한 일과 더 관련되어 있다[21]. 따라서

노후에도 여자 노인은 살림의 주도권을 아들 부부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가사조력이라는 역할이 있지만, 남자 노인은 젊었을 때의 활동범위가 주로 사회였기 때문에 은퇴로 인해 활동무대가 축소되게 된다[22].

3.1.3 연령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23-25] 부양행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았으나, 정기원(2001)[2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별거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7]. 이처럼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 부양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3.1.4 혼인상태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고령자통계'[28]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비율은 무배우 고령자가 23.8%로 유배우 고령자(50.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1.5 가구형태

임정기, 홍은진, 이주연(2010)[28]의 연구에 의하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 수발하고 있었고,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 다른 인력이 수발하는 경우보다 수발부담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수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수발부담이 높은 경우 동거가족이 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 여성노인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동거 가족이 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보다 동거하는 경우에 부양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30]도 있다. 이처럼 가구형태에 따라 부양교환이 다르게 나타났다.

3.1.6 교육수준

개인의 생활태도를 결정짓는 가치관은 후천적 학습, 특히 학교 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31]. 노인의 교육수준(학력수준)에 따라 부양교환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다르다.

3.1.7 취업상태, 소득

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소득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부양교환의 형태도 다르지만, 노후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3.2 부양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2008)[32]이 서울 및 춘천시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1,022명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노부모의 지원은 노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또 노인이 느끼는 부양책임감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인환(2008)[33]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자녀가 친부모와 배우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태도, 직계우선 가치관, 부모우선 가치관 보다는 부모가 베풀어준 지원에 대한 실질적 보답의 성격이 강했다. 또 전성표(2007)[34]에 의하면 자녀는 대체로 부모에게 받은 동일한 유형의 도움(신체적 지원에는 신체적 지원으로, 정감적 지원에는 정감적 지원으로)으로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자녀가 부모(배우자의 부모)에게 드리는 도움이 교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석철(2012)[35]은 부모를 부양한 경험이 부양자인 자녀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양의 동기를 규범적 동기와 교환론적 동기로 구분하여 부양에 있어서 동기의 차이가 부양자의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부양자보다 부양자가, 규범적 동기보다 교환론적 동기에 의한 부양자가 노년기에 그들의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대간의 부양교환에 관한 연구는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가족내에서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기만 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부양지원의 수혜자로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을 강조하는 지원교환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36-38]. 즉, 노년기에 사회적 부양체계의 부족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들 또한 결혼한 후에도 불안정한 경제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등의 도움을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석, 김익기(2000)[5]의 연구는 자녀로부터의 일방적 지원의 수급은 노부모들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초래하고, 세대 간 지원의 상호교환이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에 중요한 요소라 하였다. 홍미령(2004)[39]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영향과 함께 개인생활의 제약을 가져와 부양자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규세대 가치관 차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 부양받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라고 하였다.

신영선(2005)[30]은 “과거에는 부계직계가족 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바로 정서적 부양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현대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치관의 약화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때 정서적 부양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일방적 부양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부양에 있어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부양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어느 한쪽이 일방적 시혜와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노인과 가족구성원들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최근에는 가족 형태 및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공적 부양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사적 부양의식이 과거에 비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일방적이고 규범적인 부양이 아니라 교환론적인 동기에 의한 주고받는 상호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부모와 장성한 자녀간의 상호 교환적 부양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

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5][30].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과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안에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가짐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에 부양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부양의 줌과 받음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부양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과 자식 간의 부양관계를 정서적·신체적·경제적 부양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실질적으로 부양의 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부양 교환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양 교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현 거주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연평균 가구총소득 등을 하위변인으로 두었다.

부양 교환의 내용은 정서적 부양 교환, 신체적 부양 교환, 경제적 부양 교환을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부양 교환에 있어서 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과 비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양 교환의 대상별로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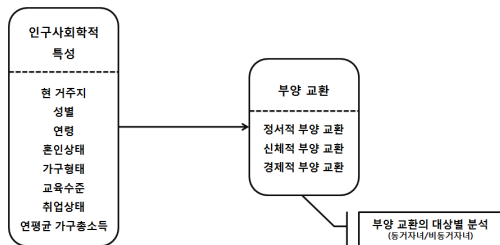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동거자녀와

노인 간 부양 교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동거자녀

와 노인 간 부양 교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 [37]에서 구축한 표본으로 전국 3,142개의 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총 11,542명의 조사완료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0,6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 거주지는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서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의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하여 25개 층으로 표본수를 배정하였다.

표 1. 2011년 노인조사 완료 현황 (단위: 명)

시도	총 조사 완료 노인수	65세 이상 노인수
강원도	443	418
경기도	2,218	2,058
경남	593	543
경북	856	813
광주	295	281
대구	561	534
대전	296	285
부산	920	837
서울	2,220	1,939
울산	190	182
인천	521	495
전남	690	652
전북	574	533
제주	142	138
충남	614	594
충북	410	373
전국	11,542	10,674

2.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2.1 독립변수

연령은 2011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을 의미하고, 65세 이상을 5년 단위로 나누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와 무배우로 분류하였고, 가구형

태는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취업 여부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분류한다.

연평균 가구총소득은 1분위(~763만원), 2분위(764~1,193만원), 3분위(1,194~1,849만원), 4분위(1,850~3,170만원), 5분위(3,171만원~)로 분류하였다.

2.2 종속변수

부양교환은 정서적 부양 교환(고민상담), 신체적 부양 교환(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 경제적 부양 교환(현금 및 현물지원)으로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분류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집된 「2011년 노인실태조사」 [40]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양 교환의 대상, 부양 교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동거 및 비동거 자녀 간 부양 교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하여 Scheffe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하여 $\alpha=.05$ 의 유의수준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동 7,257명(68.00%), 읍면 3,418명(32.00%)으로 읍면 거주자보다 동 거주자가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4,605명(43.10%), 여성이 6,069명(56.90%)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70-74세가 3,240명(30.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5-69세가 3,180명(29.80%), 75-79세가 2,414명(22.60%), 80-84세가

1,183명(11.10%), 85세 이상이 658명(6.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 7,199명(67.40%), 무배우 3,475명(32.60%)으로 유배우자가 더 많았고,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2,094명(19.60%), 노인부부가구 5,172명(48.50%), 자녀동거가구 2,916명(27.30%), 기타가구 492명(4.60%)으로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고, 자녀동거가구, 노인독거가구, 기타가구의 순으로 많았다. 가족구성원 가운데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는 2,977명(27.90%), 없는 경우는 7,698명(72.10%)으로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가 10,311명(96.60%), 없는 경우가 363명(3.40%)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거주지역	동	7257	68.00
	읍면	3418	32.00
성별	남자	4605	43.10
	여자	6069	56.90
연령	65-69	3180	29.80
	70-74	3240	30.40
	75-79	2414	22.60
	80-84	1183	11.10
	85+	658	6.20
혼인상태	유배우	7199	67.40
	무배우	3475	32.60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094	19.60
	노인부부가구	5172	48.50
	자녀동거가구	2916	27.30
	기타가구	492	4.60
동거자녀	있음	2977	27.90
	없음	7698	72.10
비동거자녀	있음	10311	96.60
	없음	363	3.40
교육수준	무학(글자모름)	1169	10.90
	무학(글자해독)	2213	20.70
	초등학교	3782	35.40
	중고등학교	2770	25.90
	전문대학교 이상	741	6.90
취업상태	예	3569	33.40
	아니오	7105	66.60
가구소득	1분위(~763만)	2135	20.00
	2분위(764~1193)	2138	20.00
	3분위(1194~1849)	2132	20.00
	4분위(1850~3170)	2135	20.00
	5분위(3171~)	2134	20.00
합계		10674	100.00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글자모름) 1,169명(10.90%), 무학(글자해독) 2,213명(20.70%), 초등학교 3,782명(35.40%),

중고등학교 2,770명(25.90%), 전문대학교 이상 741명(6.90%)으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가장 적었다. 이들 가운데 취업자가 3,569명(33.40%), 미취업자가 7,105명(66.60%)로 미취업자의 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므로 은퇴로 인해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미취업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가구총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분위(~763만원) 2,135명(20.00%), 2분위(765~1193만원) 2,138명(20.00%), 3분위(1194~1849만원) 2,132명(20.00%), 4분위(1850~3170만원) 2,135명(20.00%), 5분위(3171~만원) 2,134명(20.00%)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부양 교환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 교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 ‘그런 편이다’가 1556명(52.50%)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790명(26.60%), ‘매우 그렇다’ 352명(11.90%), ‘전혀 그렇지 않다’ 268명(9.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해주는 정도에 대해 ‘그런 편이다’가 1,478명(49.80%)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925명(31.20%), ‘전혀 그렇지 않다’ 301명(10.10%), ‘매우 그렇다’ 263명(8.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동거자녀와 노인 간에는 어느 정도 정서적 부양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동거하면서 서로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와 고민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받는 정도에 있어 7,193명(69.90%)이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받는 편이고, 3,100명(30.10%)이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받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정서적 도움)을 해주는 노인은 6,262명(60.80%), 해주지 않는다는 노인은 4,030명(39.20%)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부양교환이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외로 동거자녀보다 비동거자녀와의

정서적 부양교환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같이 사는 경우 특별히 고민을 상담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고민상담은 비동거자녀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비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 교환 특성

	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비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N	%	N	%
매우 그렇다	352	11.90	1164	11.30
고민 상담 그런 편이다	1556	52.50	6029	58.60
상담 그렇지 않은 편이다	790	26.60	2295	22.30
받음 전혀 그렇지 않다	268	9.00	805	7.80
합계	2967	100.00	10292	100.00
매우 그렇다	263	8.90	804	7.80
고민 상담 그런 편이다	1478	49.80	5458	53.00
상담 그렇지 않은 편이다	925	31.20	2981	29.00
줌 전혀 그렇지 않다	301	10.10	1049	10.20
합계	2967	100.00	10292	100.00

연구대상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 교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동거자녀에게 청소·식사준비·세탁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 514명(17.30%), ‘그런 편이다’ 1,264명(42.6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4명(29.10%), ‘전혀 그렇지 않다’ 326명(11.00%)이었고, 도움 주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 608명(20.50%), ‘그런 편이다’ 1,183명(39.9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32명(24.70%), ‘전혀 그렇지 않다’ 444명(15.00%)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병·수발·병원 등에 대해 도움을 받는 정도에 있어 ‘매우 그렇다’ 469명(15.80%), ‘그런 편이다’ 1,404명(47.3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22명(24.30%), ‘전혀 그렇지 않다’ 372명(12.50%)이었고, 도움을 주는 정도에 있어 ‘매우 그렇다’ 175명(5.90%), ‘그런 편이다’ 635명(21.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10명(34.00%), ‘전혀 그렇지 않다’ 1,148명(38.70%)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와 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식사준비·세탁 등과 같은 가사노동은 부양의 교환이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

율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데에는 신체적 제약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간병·수발·병원 등에 대한 도움은 받는 경우가 주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 교환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가 원인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도움은 대등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표 4.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비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 교환 특성

		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비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N	%	N	%
청소·식사준비·세탁 받음	매우 그렇다	514	17.30	581	5.60
	그런 편이다	1264	42.60	4187	40.7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4	29.10	3907	38.00
	전혀 그렇지 않다	326	11.00	1616	15.70
	합계	2967	100.00	10292	100.00
청소·식사준비·세탁 줌	매우 그렇다	608	20.50	132	1.30
	그런 편이다	1183	39.90	1021	9.9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32	24.70	3955	38.40
	전혀 그렇지 않다	444	15.00	5184	50.40
	합계	2967	100.00	10292	100.00
간병·수발·병원도움 받음	매우 그렇다	469	15.80	774	7.50
	그런 편이다	1404	47.30	4328	42.10
	그렇지 않은 편이다	722	24.30	3280	31.90
	전혀 그렇지 않다	372	12.50	1910	18.60
	합계	2967	100.00	10292	100.00
간병·수발·병원도움 줌	매우 그렇다	175	5.90	72	0.70
	그런 편이다	635	21.40	713	6.9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10	34.00	3848	37.40
	전혀 그렇지 않다	1148	38.70	5659	55.00
	합계	2967	100.00	10291	100.00

반면에 비동거자녀에게 청소·식사준비·세탁에 도움을 받는 노인은 4,768명(46.30%), 주는 노인은 1,153명(11.20%)이었고, 간병수발·병원등에 도움을 받는 노인은 5,102명(29.60%), 주는 노인은 785명(7.60%)이었다. 동거자녀와의 신체적 부양교환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양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신체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음을 동거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주는 경우가 훨씬 적었다. 신체적 부양의 특성상 동거여부가 부양교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정도에 대해 ‘그런 편이다’가 1,329명(44.9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 872명(29.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7명(14.40%), ‘전혀 그렇지 않다’ 335명(11.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해주는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59명(49.30%)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5명(29.20%), ‘그런 편이다’ 533명(18.00%), ‘매우 그렇다’ 103명(3.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정도에 있어 9,251명(90.00%)이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편이고, 1,032명(10.00%)이 현금·현물지원을 받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현물지원을 해주는 노인은 2,004명(19.50%), 해주지 않는다는 노인은 8,282명(80.50%)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자녀와의 정서적 부양교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비동거자녀 간 경제적 부양 교환 특성

	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비동거자녀를 가진 부모		
	N	%	N	%	
현금·현물지원 받음	매우 그렇다	872	29.40	3389	33.00
	그런 편이다	1329	44.90	5862	57.00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7	14.40	819	8.00
	전혀 그렇지 않다	335	11.30	213	2.00
	합계	2963	100.00	10286	100.00
현금·현물지원 줌	매우 그렇다	103	3.50	63	0.60
	그런 편이다	533	18.00	1941	18.90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5	29.20	4398	42.80
	전혀 그렇지 않다	1459	49.30	3884	37.70
	합계	2961	100.00	10285	100.00

동거자녀와 노인 간에는 편향된 경제적 부양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은퇴시기 이후 노인의 경제적 능력 약화 또는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거자녀에 비해 비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교환이 보다 편향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같이 사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양교환의 기회가 많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양 교환

3.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부양 교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관련 변수 수들 중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정서적 부양의 고민상담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에 따라 정서적 부양의 고민상담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 교환

	고민상담받음 (M±SD)	F	고민상담줌 (M±SD)	F
거주 동	2.66±0.81		2.57±0.80	
지역 읍면	2.70±0.77	0.83	2.60±0.76	2.66
성별 남자	2.56±0.78	20.05	2.54±0.78	20.69
여자	2.74±0.80	***	2.60±0.80	***
연령 65-69	2.61±0.78a		2.63±0.77b	
70-74	2.71±0.75ab		2.67±0.75b	
연령 75-79	2.69±0.84ab	4.15*	2.59±0.82b	12.15
80-84	2.59±0.86a		2.39±0.81a	***
85+	2.82±0.80b		2.33±0.81a	
혼인 유배우	2.60±0.78	9.23*	2.60±0.77	0.88
상태 무배우	2.77±0.82		2.54±0.81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2.25±1.15		1.62±0.58a	6.63
노인부부가구	2.68±0.79	1.89	2.58±0.78b	**
자녀동거가구	2.41±0.95		2.30±0.95b	
기타가구	2.75±0.82b		2.50±0.86ab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71±0.82b	10.37	2.51±0.78a	6.75
무학(글자해독)	2.65±0.78b	***	2.66±0.76b	***
초등학교	2.31±0.88a		2.65±0.83ab	
중고등학교	2.66±0.76		2.65±0.77	
전문대학이상	2.68±0.81	2.67	2.55±0.79	4.56*
취업 예	2.61±0.88ab		2.53±0.84	
아니오	2.49±0.90a	6.85	2.51±0.89	
1분위	2.58±0.83ab	***	2.60±0.79	0.45
2분위	2.67±0.77ab		2.58±0.76	
3분위	2.72±0.79b		2.58±0.79	
4분위				
5분위				

주1. * p<.05, ** p<.01, *** p<.001

주2. 사후검정방법: Scheffea,b,c

사후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동거자녀와 고민상담을 많이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5세 이상 노인이 그보다 낮은 연령대에 비해 가장 고민상담을 많이 받고 있었고, 65-79세 노인이 8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받았고, 노인부부가구의 노인이

이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의 노인보다 고민상담을 적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전문대학교 이상인 노인은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노인보다 고민상담을 적게 받았고, 글자해독이 가능한 무학노인이 고민상담을 가장 적게 해주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가장 많이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노인이 미취업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5분위인 노인이 가장 고민상담을 많이 받고, 2분위인 노인이 가장 적게 받고 있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관련 변수들 중 거주지역,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정서적 부양의 고민상담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정서적 부양의 고민상담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거주자가 동거주자보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비동거자녀와 고민상담을 많이 주고받고 있었다. 연령에서는 세 집단군으로 나누었는데 65-74세 노인이 가장 많이 고민상담을 주고 받았고, 그 다음이 75-84세, 85세 이상 순이었다. 연령층이 낮은 노인일수록 비동거자녀와 정서적 부양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동거자녀 간 관계와 비교하면 연령층이 낮은 노인일수록 고민상담을 많이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고, 85세 이상 노인이 동거자녀에게는 고민상담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비동거자녀에게는 가장 적게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비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노인이 고민상담을 가장 많이 받았고,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이 가장 적게 받고 있었으며, 다른 가구의 노인보다 노인부부가구의 노인이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 교육수준 별로 고민상담을 받는 정도는 모두 비슷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졸업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자 글자해독이 가능한 무학자, 글자를 모르는 무학자의 순으로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중고등

학교인 노인이 비동거자녀와 정서적 부양교환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취업 노인이 미취업 노인보다 고민상담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득수준 3분위와 4분위의 노인이 1분위와 5분위의 노인에 비해 고민상담을 많이 받았고, 4분위, 3분위, 2분위와 5분위, 1분위 순으로 고민상담을 많이 해주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노인은 비동거자녀와 정서적 부양교환을 가장 적게 하고 있었다.

표 7.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녀 간 정서적 부양 교환

		고민상담받음 (M±SD)	F	고민상담줌 (M±SD)	F
거주 지역	동	2.72±0.79	4.05 *	2.57±0.79	5.68 *
	읍면	2.77±0.70	*	2.61±0.74	*
성별	남자	2.67±0.77	91.09 ***	2.56±0.78	90.98 ***
	여자	2.78±0.75	***	2.60±0.77	***
연령	65-69	2.77±0.71b		2.67±0.73c	
	70-74	2.76±0.76b		2.65±0.75c	
	75-79	2.69±0.79ab	2.89 *	2.53±0.81b	14.68 ***
	80-84	2.69±0.79ab	*	2.45±0.82b	
	85+	2.64±0.81a		2.29±0.82a	
혼인 상태	유배우	2.73±0.74	0.20	2.63±0.76	19.14 ***
	무배우	2.74±0.80		2.49±0.81	***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2.77±0.80b		2.54±0.81a	
	노인부부가구	2.76±0.74b	15.55 ***	2.64±0.77b	18.63 ***
	자녀동거가구	2.66±0.76a	***	2.51±0.76a	***
	기타가구	2.69±0.75ab		2.56±0.77a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72±0.78a		2.43±0.85a	
	무학(글자해독)	2.72±0.78a		2.54±0.78b	
	초등학교	2.74±0.74a	4.05 **	2.60±0.75bc	8.80 ***
	중고등학교	2.75±0.75a	**	2.65±0.76c	
	전문대학이상	2.73±0.78a		2.63±0.78bc	
취업 상태	예	2.77±0.69	8.91 **	2.68±0.71	26.86 ***
	아니오	2.71±0.79	**	2.54±0.80	***
소득 수준	1분위	2.68±0.79a		2.46±0.82a	
	2분위	2.73±0.77ab		2.55±0.78b	
	3분위	2.77±0.76b	10.16 ***	2.63±0.77bc	19.72 ***
	4분위	2.79±0.70b	***	2.69±0.72c	
	5분위	2.69±0.77a		2.59±0.78b	

주1. * p<.05, ** p<.01, *** p<.001
 주2. 사후검정방법: Scheffea,b,c

3.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부양 교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관련 범주들 중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교

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동거주자가 읍면거주자보다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적게 받고 있었으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동거자녀와 많이 주고받고, 간병·수발·병원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다. 또 두 가지 도움 모두 연령대가 높은 노인일수록 많이 받고 적게 주는 특징이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적게 받고,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적게 주고받고 있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높은 노인에 비해 대체적으로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고,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주는 것은 교육수준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간병·수발·병원도움은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밤중에 있어 그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 취업한 노인이 미취업 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적게 받고 있었다. 소득수준 2분위의 노인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가장 적게 받고 있었고, 소득수준 1분위의 노인이 5분위의 노인에 비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동거자녀에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

표 8.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 교환

		① (M±SD)	F	② (M±SD)	F
거주 지역	동	2.63±0.88	13.56 ***	2.67±0.97	
	읍면	2.81±0.91	***	2.60±0.97	0.13
성별	남자	2.54±0.88	6.39 *	2.17±0.87	558.35 ***
	여자	2.74±0.89	*	2.96±0.90	***
연령	65-69	2.04±0.82a		2.77±0.98c	
	70-74	2.54±0.82a		2.78±0.92c	
	75-79	2.76±0.89b	35.55 ***	2.71±0.91c	58.90 ***
	80-84	2.94±0.89b	***	2.48±0.96b	
	85+	3.31±0.81c		2.07±0.93a	

혼인 상태	유배우	2.45±0.85	80.05	2.56±0.98	2.10
	무배우	2.95±0.86	***	2.80±0.94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2.62±0.58	0.60	2.26±1.16	0.59
	자녀동거가구	2.67±0.89		2.66±0.96	
	기타가구	2.55±0.96		2.46±1.03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97±0.86c		2.70±0.99a	
	무학(글자해독)	2.82±0.92c	7.86	2.74±0.98a	10.69
	초등학교	2.66±0.87b	***	2.65±0.97a	***
	중고등학교	2.46±0.83a		2.58±0.94a	
	전문대학이상	2.30±0.87a		2.62±0.95a	
취업 상태	예	2.49±0.85	2.33	2.63±0.92	2.149
	아니오	2.72±0.89		2.67±0.98	
소득 수준	1분위	2.65±0.93b		2.82±0.80b	
	2분위	2.29±0.91a	35.86	2.77±0.98ab	4.213
	3분위	2.58±0.94b	***	2.70±0.95ab	**
	4분위	2.56±0.86b		2.73±0.97ab	
	5분위	2.78±0.87b		2.58±0.97a	

		③	F	④	F
		(M±SD)		(M±SD)	
거주 지역	동	2.63±0.88	11.49	1.94±0.91	
	읍면	2.80±0.89	**	1.96±0.92	1.99
성별	남자	2.49±0.90	0.154	1.84±0.86	33.689
	여자	2.77±0.87		2.01±0.94	***
연령	65-69	2.40±0.88a		2.05±0.94c	
	70-74	2.61±0.85b		1.96±0.90bc	
	75-79	2.72±0.86b	24.31	1.97±0.93bc	11.0***
	80-84	2.95±0.80c	***	1.83±0.92b	
	85+	3.21±0.81d		1.67±0.76a	
혼인 상태	유배우	2.47±0.87	52.98	1.92±0.91	6.19
	무배우	2.93±0.84	***	1.97±0.92	*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2.62±0.58	0.85	2.26±1.16	0.44
	자녀동거가구	2.67±0.89		1.94±0.91	
	기타가구	2.37±1.00		2.06±1.03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93±0.86d		1.83±0.91a	
	무학(글자해독)	2.81±0.85cd	11.38	1.95±0.90ab	6.72
	초등학교	2.73±0.85c	***	1.93±0.89ab	***
	중고등학교	2.43±0.89b		1.97±0.91ab	
	전문대학이상	2.19±0.90a		2.11±1.09b	
취업 상태	예	2.48±0.85	8.11	2.00±0.93	2.46
	아니오	2.73±0.89	**	1.93±0.91	
소득 수준	1분위	2.54±0.89ab		2.06±0.99a	
	2분위	2.43±0.92a	11.43	2.10±1.04a	6.95
	3분위	2.67±0.91b	***	2.06±0.94a	***
	4분위	2.69±0.81b		1.96±0.91a	
	5분위	2.69±0.92b		1.88±0.88a	

주1. ①청소·식사준비·세탁 받음
 ②청소·식사준비·세탁 줌
 ③간병·수발·병원도움 받음
 ④간병·수발·병원도움 줌
 주2. * p<.05, ** p<.01, *** p<.001
 주3. 사후검정방법: Scheffea, b, c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

녀 간 신체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관련 범주들 중 거주지역,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정결과를 살펴보면 읍면거주자가 동거주자보다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도움을 비동거자녀에게 많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가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자녀동거가구가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독거가구가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가장 적게 주고,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가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있었다. 한편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노인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가장 적게 받고, 무학자인 노인이 가장 많이 받는 반면에, 무학자의 노인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과 간병·수발·병원도움을 가장 적게 주고,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졸업자인 노인이 가장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다. 또 취업한 노인이 미취업 노인보다 비동거자녀에게 간병·수발·병원도움을 적게 받고 있었다. 소득수준 5분위의 노인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가장 적게 받고, 1분위의 노인이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가장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수발·병원도움에 있어도 5분위의 노인이 가장 적게 받고, 1분위의 노인이 가장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위의 노인이 가장 많이 받고, 4분위의 노인이 가장 많이 주고 있었다.

표 9.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녀 간 신체적 부양 교환

	① (M±SD)	F	② (M±SD)	F
거주 동 지역 읍면	2.29±0.82 2.51±0.76	63.33 ***	1.63±0.72 1.59±0.70	0.66
성별	남자 여자	0.13	1.52±0.65 1.70±0.75	221.73 ***
연령	65-69 70-74 75-79 80-84 85+	13.714 ***	1.75±0.78d 1.66±0.72c 1.53±0.65b 1.49±0.64b 1.38±0.56a	38.77 ***
혼인 상태	유배우 무배우	2.85	1.64±0.72 1.59±0.69	0.23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52.18 ***	1.57±0.68a 1.65±0.73b 1.60±0.71ab 1.63±0.71b	4.67 **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12.19 ***	1.49±0.66a 1.59±0.70b 1.68±0.74c 1.63±0.70bc 1.57±0.70b	12.98 ***
취업 상태	예 아니오	0.08	1.64±0.72 1.61±0.71	0.09
소득 수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6.27 ***	1.54±0.68a 1.63±0.70b 1.64±0.72b 1.68±0.74b 1.62±0.73b	4.03 **

	③ (M±SD)	F	④ (M±SD)	F
거주 동 지역 읍면	2.33±0.88 2.50±0.84	45.71 ***	1.54±0.66 1.51±0.64	0.03
성별	남자 여자	4.18	1.50±0.64 1.56±0.67	43.93 ***
연령	65-69 70-74 75-79 80-84 85+	28.81 ***	1.59±0.69c 1.58±0.67c 1.49±0.64b 1.45±0.59b 1.35±0.53a	12.71 ***
혼인 상태	유배우 무배우	0.13	1.55±0.66 1.50±0.64	2.82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가구	24.17 ***	1.48±0.63 1.56±0.67 1.52±0.64 1.59±0.71	1.71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24.06 ***	1.41±0.60a 1.50±0.64b 1.57±0.66c 1.57±0.67c 1.49±0.66b	14.64 ***

취업 예	2.34±0.85	28.45 ***	1.56±0.67	0.64
상태 아니오	2.41±0.88		1.52±0.65	
1분위	2.43±0.89bc		1.44±0.61a	
2분위	2.49±0.85c		1.54±0.64bc	
3분위	2.42±0.87bc	16.32 ***	1.58±0.67c	8.02 ***
4분위	2.39±0.86b		1.60±0.69c	
5분위	2.19±0.85a		1.51±0.64b	

주1. ①청소식사준비세탁 받음
 ②청소식사준비세탁 줌
 ③간병수발병원도움 받음
 ④간병수발병원도움 줌
 주2. * p<.05, ** p<.01, *** p<.001
 주3. 사후검정방법: Scheffea,b,c

3.3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부양 교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동거자녀 간 경제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관련 범주들 중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현물지원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동지역의 노인이 읍면지역의 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고,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5세 이상 노인이 그보다 낮은 연령대에 비해 동거자녀에게 가장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받고, 가장 적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주고 있었고, 노인부부가구의 노인이 자녀동거가구의 노인보다 현금·현물지원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이 전문대학교 이상인 노인은 그보다 낮은 교육수준의 노인보다 현금·현물지원을 적게 받았고, 가장 많이 현금·현물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노인이 미취업노인보다 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해주고 적게 받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이 1분위와 2분위인 노인이 가장 현금·현물지원을 적게 받고, 4분위와 5분위의 노인이 가장 많이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2분위인 노인이 가장 많이 현금·현물지원을 주고 있었다.

표 10.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동거자녀 간 경제적 부양 교환

	현금·현물지원 받음 (M±SD)	F	현금·현물지원 줌 (M±SD)	F
거주 지역	동읍면 2.96±0.94	5.95*	1.75±0.87	3.01
성별	남자 2.82±0.98	2.15	1.83±0.89	23.96***
	여자 2.99±0.91		1.71±0.85	
연령	65-69 2.90±0.98a	3.77*	1.90±0.88c	4.31**
	70-74 2.95±0.94ab		1.84±0.87c	
	75-79 2.93±0.94ab		1.66±0.82b	
	80-84 2.77±0.95a		1.64±0.91b	
	85+ 3.09±0.75b		1.38±0.69a	
혼인 상태	유배우 2.86±0.99	9.83**	1.89±0.89	25.01***
	무배우 3.01±0.87		1.57±0.79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2.25±1.15a	5.07**	1.21±0.49	2.636
	노인부부가구 2.94±0.93b		1.76±0.87	
	자녀동거가구 2.52±1.10ab		1.75±0.76	
	기타가구 2.94±0.86b		1.44±0.68a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2.91±0.89b	12.70***	1.60±0.80a	21.19***
	무학(글자해독) 2.99±0.93b		1.78±0.87b	
	초등학교 2.93±0.97b		1.92±0.90b	
	중고등학교 2.52±1.09a		2.19±0.97c	
	전문대학이상 2.71±1.00		1.97±0.86	
취업 상태	예 3.00±0.91	32.45***	1.68±0.86	***
	아니오 2.16±1.00a		1.69±0.86a	
소득 수준	1분위 2.24±1.09a	71.42***	1.92±1.01b	6.37***
	2분위 2.66±1.02b		1.81±0.87ab	
	3분위 2.93±0.93c		1.73±0.85ab	
	4분위 3.11±0.82c		1.75±0.86ab	
	5분위 3.11±0.82c		1.75±0.86ab	

주1. * p<.05, ** p<.01, *** p<.001
 주2. 사후검정방법: Scheffea,b,c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녀 간 경제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관련 범주들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부양의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부양의 현금·현물지원을 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거주자가 동거주자보다,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비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주고 있었다. 연령에 있어 65-74세 노인이 가장 많이 현금·현물지원을 주었고, 그 다음이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순이었다. 연령층이 낮은 노인일수록 비동거자녀에게 경제적 부양을 여전히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비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많이 해주고,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비동거자녀에게 현금·현물지원을 적게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수준별로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가장 많은 현금·현물지원을 제공하였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졸업자, 무학자 순으로 현금·현물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또 취업 노인이 미취업 노인보다 현금·현물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소득수준 5분위 노인의 경우 가장 적게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반면에 가장 많이 현금·현물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과 비동거자녀 간 경제적 부양 교환

	현금·현물지원 받음 (M±SD)	F	현금·현물지원 줌 (M±SD)	F
거주 지역	동읍면 3.19±0.70	3.56	1.76±0.78	131.48***
읍면	3.56±11.18		1.95±0.65	
성별	남자 3.41±9.69	1.43	1.89±0.77	33.68***
	여자 3.24±0.67		1.77±0.73	
연령	65-69 3.12±0.64	2.07	1.97±0.75d	16.21***
	70-74 3.56±11.53		1.88±0.74d	
	75-79 3.27±0.70		1.76±0.73c	
	80-84 3.28±0.68		1.61±0.72b	
	85+ 3.22±0.67		1.44±0.66a	
혼인 상태	유배우 3.37±7.72	.12	1.93±0.75	47.16***
	무배우 3.19±0.74		1.59±0.69	
가구 형태	노인독거가구 3.32±0.75	2.29	1.64±0.68a	75.98***
	노인부부가구 3.47±9.04		1.97±0.74c	
	자녀동거가구 3.03±0.63		1.70±0.76a	
	기타가구 3.23±0.68		1.76±0.72b	
교육 수준	무학(글자모름) 3.25±0.67	1.73	1.64±0.67a	18.41***
	무학(글자해독) 3.21±0.68		1.70±0.69a	
	초등학교 3.52±10.69		1.83±0.73b	
	중고등학교 3.22±0.67		1.91±0.78b	
	전문대학이상 3.05±0.69		2.13±0.85c	
취업 상태	예 3.45±10.96	.03	2.05±0.68	204.71***
	아니오 3.24±0.71		1.71±0.76	
소득 수준	1분위 3.27±0.75ab	3.51**	1.56±0.65a	89.28***
	2분위 3.35±0.67ab		1.77±0.67b	
	3분위 3.24±0.68ab		1.88±0.73c	
	4분위 3.67±14.21b		1.91±0.76c	
	5분위 3.03±0.61a		1.99±0.85d	

주1. * p<.05, ** p<.01, *** p<.001
 주2. 사후검정방법: Scheffea,b,c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일차적 사회집단인 가족 구성원 간 부양교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집된 「2011년 노인실태조사」 [37]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양 교환의 대상, 부양 교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와 자식 간 부양 교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가설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동거 자녀와 노인 간 부양 교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정서적 부양교환을 살펴보면 고민상담 받는 것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주는 것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부양 중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받는 것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주는 것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간병·수발·병원도움을 받는 것에서는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주는 것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것은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현금·현물지원을 주는 것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를 받았다.

둘째가설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동거 자녀와 노인 간 부양 교환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다. 정서적 부양교환에서 고민상담을 받는 것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는 것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부양교환 중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받는 것은 거주지

역,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을 주는 것은 성별,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병·수발·병원도움 등을 받는 것에는 거주지역,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간병·수발·병원도움 등을 주는 것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현금·현물지원을 받는 것은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현금·현물지원을 주는 것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가설도 지지를 받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정서적 부양교환(고민상담)에 있어서 동거 자녀가 있는 부모와 동거 자녀가 없는 부모 공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교환이 활발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거자녀에게 고민상담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거 자녀를 가진 남성 노인에 비해 비동거 자녀를 가진 남성 노인의 정서적 부양 교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들 남성 노인들이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경로당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소외 부분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부양교환은 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의 경우 가사노동도움(청소·식사준비·세탁도움)은 낮은 연령대일수록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많이 받고 있었다. 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가사노동의 교환이 활발하여, 노후에도 여자 노인은 살림의 주도권을 부부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가사조력이라는 역할이 있지만, 남자 노인은 젊었을 때의 활동범위가 주로 사회였기 때문에 은퇴로 인해 활동무대가 축소되게 된다[27]는 타 논문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비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의 경우 가사노동도움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이 주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교환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인과 자녀 간의 경제적 부양교환의 경우 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과 비동거 자녀를 가진 모두 읍면거주자, 남성, 낮은 연령,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 취업노인 등의 범주에서 보다 현금·현물 지원을 적게 받고, 많이 주는 등 경제적 부양교환의 형태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현금·현물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비동거자녀를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현금·현물지원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거 자녀를 가진 노인들이 비동거 자녀를 노인들에 비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들에게 현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저학력, 저소득, 고연령)을 가진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구성원에게 신체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부양을 받는 비율은 높았으며, 부양교환이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락과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한계로 인해 노인과 가족구성원들 간의 신체적 부양교환, 경제적 부양교환은 대등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복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존에 불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와 정서적 부양교환에 있어 많이 받고 적게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거자녀의 정서적인 부양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비동거자녀와는 적게 받고 적게 주는 경향이 나타나 부양교환에 가장 둔감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의 고독감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부양의 경우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맞추어서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혈연관계로 이어져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가족구성원만큼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적 부양에 있어서

는 노인과 가족구성원들과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노인이나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봉사도우미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인이 은퇴 후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각종 사회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부양관계는 특히 노년기에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노년기가 생의 마지막 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은퇴로 인해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퇴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이 중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1년에 실시된 것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및 가치관을 고려해 볼 때 연구결과 자체가 최근의 동향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2차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관련 변수와 같은 중요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 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최근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한 차이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빠져 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 교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들을 포함하여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 교환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부양 교환 및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부양 교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34501
- [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34501
- [3] 전명수, “요양노인과 가족 부양자의 특성이 부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93-203, 2013.
- [4]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4권, 제1호, pp.3-29, 2013.
- [5] 김정석, 김익기,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제20권, 2호, 통권 33호, pp.155-168, 2000.
- [6]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2005.
- [7]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법문사, 2005.
- [8]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 [9] 박창제, “치매노인 부양가족을 위한 휴식보호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 [10] 조지현,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 부양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중국-대만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1] 이기호, *중학생들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노원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황슬기,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3] 박근수, 김태일,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467-479, 2016.
- [14] 진달래,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5] 조성희,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기능, 부양의무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6] 권기갑,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7] 강선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부모 부양의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8] 박성수, *노인부양형태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령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19] 조성희, *노부부간 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이신정, *농촌 지역 사회 독거 노인의 재가 복지 서비스 수요와 공급간 격차에 관한 연구: 강릉시 연곡면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학사학위논문, 2007.
- [21]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2007.
- [22] 정선주, *청·장 노년기의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3] 김상욱, 양철호,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부 및 시모에 대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pp.51-83, 1998.
- [24] 송현애, 김순옥,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83-101, 1988.
- [25] 서소영, 김명자,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제2호, pp.81-107, 1998.
- [26] 정기원,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pp.123-148, 2001.
- [27] 조지현,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 부양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일본-중국-대만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688
- [29] 임정기, 홍은진, 이주연, “노인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비교,”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4권, pp.253-273, 2010.
- [30] 신영선, *맞벌이부부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및 가족주의가치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5.

- [31] 이정관, “100세 시대의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의 과제,” 신학과 실천 제39호, pp.389-411, 2014.
- [32]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8권, pp.47-65, 2008.
- [33] 이인환, *기혼자녀의 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4] 전성표, “부모 부양 : 효도인가, 교환인가?,” [KGSS] 가족, 정부 그리고 계층, 삼성경제연구소, pp.49-75, 2007.
- [35] 하석철, “부양 경험이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3호, pp.181-209, 2012.
- [36] 박경숙,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pp.61-94, 2003.
- [37]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유형과 결정요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출판부, 2005.
- [38] 한경혜, 김상욱, “세대 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44권, 제4호, pp.1-31, 2010.
- [39] 홍미령, *고령화 사회 가족 부양의 의미와 바람직한 역할 모델, 21세기 바람직한 가정의 역할모델 제시를 위한 세미나 발표자료*, 2004.
- [40]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cond_research_name=&cond_organ_id=&cond_research_year_start=&cond_research_year_end=&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31424&research_id=1351000-201100144&pageIndex=168&leftMenuLevel=110

저 자 소 개

김 상 윤(Sang-yeo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 학사)
- 2015년 2월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인구고령화, 가족사회학, 베이비부머

김 한 곤(Han-Gon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2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85년 12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사회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저출산, 인구고령화, 다문화, 보건사회학분야